

基調講演

李退溪의 史的地位와

日本儒學과의 異質性

日本阿部吉雄(東京大名譽教授·文博)

<目

次>

I. 史的地位

1. 朱子以後의 1人

2. 理氣哲學

3. 道學과 그 性格

4. 居敬存養

5. 氣質變化의 修養學

6. 道란 人倫의 道, 天地의 道

7. 第二의 王仁

II. 日本儒學과의 異質性

1. 存心の 學과 大義名分の 學

2. 日鮮中三國의 朱子學

3. 元田永孚과 李退溪

I. 史的地位

1. 朱子以後의 一人

나는 李退溪라는 분이 얼마나 偉大한 사람인가 하는 質問을 자주 받게 된다. 그때마다 나는 幕府末期의 俊傑 横井小楠이 元明以來 「古今絶無한 眞儒」라고 까지 評價한 일이 있고 또 江戸時代に 그의 著述 十一種이 出版된 일이 있다고 答하기로 하고 있다. 李退溪가 朝鮮朝 第一의 大儒이며 그 風化는 朝鮮全土에 미쳤다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定論이지만 朱子以後의 第一人者라고 하는 評價도 이미 退溪의 門人(이를테면 曹好益)中에서 나와 있었다. 그런데 日本에서도 일찍부터 朱子以後의 一人이라고 評價하는 者가 續出하고 있던 것이다.

日本에 있어서 李退溪의 學德을 가장 높이 評價한 사람은 山崎闇齋라고 指適했던 것은 나 自身이였지만 日本近世儒學의 開祖, 藤原惺窩나 林羅山도 李退溪의 著述, 특히 『天命圖說』을 읽고 理氣哲學이라고 하는 當時로서는 斬新한 世界觀에 感動하여 그 때까지 日本을 支配

하고 있었던 佛敎의 世界觀을 一轉시키는 중요한 資料로 삼았고 특히 林羅山은 「何處에서던 材를 生하지 못하랴」고 하여 痛切히 李退溪의 學才에 推服했으며 藤原惺窩는 李退溪가 校刻한 『延平問答』을 거의 自己의 開眼書로 삼고 重히 했었는데 李退溪의 全著述을 남김없이 讀破하여 그 學德의 全體에 관해서 가장 높히 評價한 것은 山崎闇齋부터이다. 그 闇齋는 退溪를 「洞游面命에 다르지 않다」(朱子의 直弟子에 다르지 않다)고 하여 「朝鮮의 一人」이라고 評價했었는데 그의 高弟 佐藤直方에 이르러서는 「그 學識이 미치는 바 크게 元明諸儒의 儔(類)가 아니다」라고 評하고 「朝鮮의 李退溪후에 이 道를 負荷할려고 願하는 者 나는 아직 그 사람을 들지 못했노라」고 까지 心服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따라서 그 三傳의 門人 稻葉默齋는 「朱子以來의 一人」 「小成의 朱子」 「朱子の 道統」이라고 까지 尊信하고 「孔子를 배울려고 하면 朱子를, 朱子를 배울려고 하면 李退溪를 모범으로 또 案内者로 하라. 그리하여서만이 이 道學의 本領을 把持할 수 있다」고 까지 높이 評價하였었다.

또 山崎派와는 달리 熊本에서는 大塚退野가 일어나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超然의 朱子의 心을 自得하여 「만약 이분이 없었다면 朱子의 微意는 不明하여 俗學으로 變化했을것을 생각하나다」(孚齋存稿 下 贈中瀬某)라고하고 李退溪의 『朱子書節要』를 研究하되 四十餘年에 이르러 마침내 熊本實學派의 祖가 되었다. 따라서 그의 門人 藪孤山은 「萬世」朱子의 緒를 이은 사람은 退溪 그분」이라고 했다. 또 幕府末 明治의 楠本碩水是 「先生(碩水)은 從來 退溪를 信함이 더욱더 敦篤하여 朱子後의 一人으로 하였다. 明治丙午(三十九年)春, 退溪言行錄 및 年譜를 得하여 이것을 읽고 번번히 曰, 陸稼書는 張楊園에 不及하고 楊園은 退溪에 不及하며 薛(文清敬軒) 胡(居仁敬齋)도 역시 不及」(碩水先生余稿)이라 하였다. 明代의 大儒薛文清 胡居仁이나 明末清初의 陸稼書 張楊園과 比較하여 명백히 「朱子以後의 一人」이라 斷定하고 있다.

李退溪는 以上の 山崎闇齋, 大塚退野, 佐藤直方, 稻葉默齋, 楠本碩水 등이 있게되어 日本에 絶大的인 知己를 얻었다고 할수 있다. 이들 學

者들은 좀처럼 「道統」, 道の 血脈이라는 말을 사용았는데 朱子の 道統은 朝鮮의 李退溪의 屈起에 의해서 李退溪를 經由하여 日本으로 傳해왔다고 믿은것 같다. 즉 李退溪를 朝鮮의 一人이라고 斷定할 뿐 아니라 朱子以後의 一人이라고 말 하자면 道學中興의 祖라고 評價했다고 해서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2. 理氣哲學

李退溪는 朱子の 學說을 깊이 그리고 精密하게 研究하였다. 그러한 그 理氣哲學說에 관해서는 「四端은 理之發, 七情은 氣之發」이라는 學說을 高弟인 奇高峯과 多年에 걸쳐 論爭했었다. 그러한 點에서 보던 저 崔南善氏가 「程朱中心의 宋學에 있어서 그래도 精細를 發하지 못했던 부분은 朝鮮의 李退溪에 와서 完成을 보았다.」(朝鮮常識問答)라고 한 것과 같이 朱子の 理氣二元哲學에서 曖昧한點, 不明한 點을 李退溪에 와서 完成했다고 評價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日本人이 李退溪를 높이 評價한 點은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는 理氣哲學說은 아니었다. 四端七情理發氣發이라는 問題로 朝鮮은 後世 李退溪派·李栗谷派로 나뉘어져 皮肉성의 黨爭을 되풀이하게 되지만 日本에서는 그러한 理氣哲學說에 관해서 깊은 追求는 하지 못하였다. 山崎闇齋가 『文會筆錄五』에 있어서 「四端七情, 理氣로 分하는 論 退溪集十六의 몇 卷에서 이를 論함 『自省錄』에 所載 가장 잘 갖추어짐, 諸儒가 言及 못한부분」이라고 論斷하고서 이 四七論爭에 관해서는 깊이 追求한 일은 없었다.

도시 朱子の 理氣哲學은 理一元論의인 理氣二元說인가 氣一元論의인 理氣二元說인가를 追窮하면 쉽게 알지 못하는 深奧한 問題인 것이다. 그런데 李退溪는 理를 主로한 二元論이라 斷定하고 奇高峯이나 李栗谷은 氣를 主로한 二元論이라고 생각하여 朱子の 文獻을 博引旁證하여 論爭을 되풀이했었다.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고 하는 李退溪의 생각도 四端七情은 理氣의 共發이라고 하는 奇高峯이나 李栗谷의 생각도 그 根本을 追及해 보면 理를 主로 하는가, 氣를 主로 하는가 하는 思考의 相違에 緣由하는 것을 일찌기 高橋亨博士가 상세하게 論

精密히 그리고 微細하게 論證되었다. 中國·日本의 學界와 比較하면 朝鮮朝에서 가장 깊이 探求되었다고 斷言해서 좋을 것이다. 그리고 近來 내가 처음으로 안 일이지만 「氣의 哲學」(이것을 一概하여 唯物論이라고 함은 語弊가 있어서 나는 取하지 않으나)을 최초로 中國에서 主唱한 사람은 羅欽順인데 이 羅欽順과 거의 同年代 겨우 一年 뒤져서 朝鮮에 徐敬德(花潭)이 나타나 朱子와는 다른 氣一元論을 主唱하고 있다. 그는 張橫渠의 說을 철저히하여 氣一元論을 主唱한 특이한 思想家로서 朝鮮에 있어서 氣의 哲學者로서는 首唱者라해서 좋은 것이다. 그의 『花潭文集』이 저 乾隆帝의 「四庫全書」에 收錄된 唯一한 朝鮮人著書인데 그 事實은 결코 가담없는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傳聞한 이야기인데 내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최근 蘇聯의 東洋學者가 같은 十六世紀初에 越南에도 氣의 哲學者가 있었다고 發表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보면 朱子哲學을 「理의 哲學」이라 稱한다면 이에 反對되는 「氣의 哲學」이 十六世紀의 初頭에 中國과 朝鮮과 越南에 거의 同時에 나타났다는 것을 매우 興味있는 思想現象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렇다하고 朝鮮에서는 理氣哲學에 깊은 關心을 갖고 探求했다고하는 點은 特記해야하며 이것은 朝鮮儒學의 큰 特色이라해서 좋을 것이다.

그런데 日本에서는 그러한 理氣哲學을 追求하지 않고 朱子哲學의 태두리를 떠나 별도로 새로운 世界觀 人間觀을 樹立하였다. 그것을 이룩한 사람이 伊藤仁齋이다. 仁齋는 理氣二元論을 물리치고 氣一元論을 세웠고 뿐만아니라 朱子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欲望을 禁하면 자연히 人間の 尊貴한 本來性, 本心이 顯現된다고 하는것은 佛敎說이며 孔子의 本來的인 思想은 欲望까지를 包含한 人間 그대로의 感情을 伸張發展시켜 調節하는 데에 倫理가 成立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說이 이단로 孔子·孟子의 참된 精神이요 가르침이라고 主張하였다. 즉 朱子の 欲望否定의 禁欲的인 倫理學으로 一轉시켜서 欲望肯定의 活動的인 倫理學으로 再定立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생각은 佛敎나 朱子學以來의 人間觀의 一大轉換이었다. 中國에서 이런說을 主張한 淸의 戴震(東原)보다도 八九十年이나 앞서서 나온 것이었다. 이와같

李退溪의 史的地位와 日本儒學과의 異質性

이 보아오니 朝鮮儒學界에서는 朱子の 哲學說에 관해서 깊고 精密하게 探究를 推進하여 他에 그 比類를 보지못할 만큼 發達을 이룩했으나 우리 日本에서는 中國에 앞서서 朱子哲學의 대두리 밖에서 새로운 人間觀을 樹立하고 있었음을 알수있다.

그런데 李退溪는 日本 儒學界로부터 한결같이 尊信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退溪를 尊信한 學者는 山崎闇齋學派와 大塚退野學派 만 이었다. 또 이들 學派도 李退溪의 四七論이라던가 個個의 學說을 尊信한 것이 아니라 李退溪의 學問全體와 그人格全體에 共鳴한 것이었다. 이러한 點을 區別해서 보지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달리 말하던 日本儒學界全體에서 본다면 李退溪는 過大評價를 받은것도 아니었으나 오직 日本의 歷史를 主導한 사람에 李退溪를 尊信한 사람이 거의 아니라치 있었다는 事實에 注意해야 하는 것이다.

2. 道學과 그 性格

그런데 李退溪를 가장 높이 評價한 山崎闇齋나 大塚退野를 스스로의 學問을 「道學」 혹은 「正學」이라고 하여 世俗인 學과 엄하게 岐別했다. 이 點은 李退溪도 같다. 李退溪는 「지금의 經生學士가 道學의 두 字를 싫어함이 董喙(毒藥)과 같다」(自省錄·答黃仲學)고 하였기만 日本에서도 道學이라는 낱말은 揶揄的인 輕蔑한 意味로 使用되고 있다. 그러나 退溪나 闇齋의 意識으로서는 道學을 眞摯한 人間의 삶의 길의 學問이며 道를 至高의 目標로 한다. 人間의 死生에 관련되는 重大한 學問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道學의 內容에 관해서 以下 약간 分析하여 退溪·闇齋의 學問의 性格에 관해서 論述하고자 한다.

(一) 道學은 道를 至高한 目標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道가 所重하기 때문에 그 道를 明白히 한 朱子를 尊敬하는 것이며 朱子가 대단하니까 道를 所重히 하는 것이 아니다. 李退溪의 말에 朱子の 言動을 多少批判한 곳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退溪는 「이것은 道를 傳하는 大事임으로서 말하는 것이다」(自省錄·答鄭子中)라고하고 있으나 이 「傳道의 大事」라는 말 속에 李退溪가 主體的으로 批判的으로 朱子를 배웠다는 것을 看取할 수 있다. 闇齋도 篤實히 朱子를 믿었으나 스스

로 朱子學者로서 自任하기를 拒絕하고 道學者로서 自任하였다. 그래서야 두 學者는 朱子の 定說未定說을 分하여 精密한 說과 疏雜한 說을 區別한 것이었다. 朝鮮이 學者의 說에 「退溪는 朱子를 배우고(李) 栗谷은 朱子를 따르고 (慕) (宋) 尤庵은 朱子에 黨한다」는 말이 있지만 朱子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朱子에 黨하는 것도 아니고 嚴肅히 朱子를 배운다고 하는것이 두 學者에 共通하는 點이더 그것은 道의 究明을 第一號로 하기 때문이었다.

(二) 孔子의 爲己之學 즉 自己完成을 第一義로하는 目的意識에 徹底하는 것이 道學의 특징이다. 따라서 널리 書冊을 읽고 吸收하는 것도 漢文의 作家로 되는것도 하물며 科擧에 及第하여 利祿을 得하는 것도 學問의 目的으로는 되지 않는다. 退溪는 다음과 같이도 말하고 있다. 「나는 年老하다 하여도 들은것이 없다. 그러나 少年시절부터 聖賢의 말씀을 篤信하여 毀譽榮辱에 不拘하고 만약 學을 하는者 그 毀譽榮辱을 두려워하던 自立은 없다. 그리고 內로 工夫없이 遽然으로서 빛들 세워 衆의 怪하는 바가 된다면 스스로 保함이 없다. 要컨데 學者는 으로지 이것에 硬確하여 비로소 能히 據守하는 바가 있다」(言行錄一) 즉 榮譽를 目的으로 하지않고 毀辱을 두려워 않고 또 學者의 進弊인 輕率히 異說을 세우려고 하지않고 일체의 功利的 觀念을 떠나기 한길로 人間이 本有하는 道義心을 發揮하고 涵養하여 君子로 된다-이것을 學問教育의 目標로하는 것이다. 山崎闇齋는 더 나아가 端的으로 「學問은 大賢聖人을 배우니까 學問이다」(山崎先生語錄)라고 喝破하고 있다. 그렇다면 大賢으로 되는데는 어떻게 하는가.

4. 居敬存養

(三) 朱子는 居敬과 窮理이라는 二本의 기둥(柱)을 세워 이것을 提示했으나 退溪와 闇齋는 窮理보다도 오히려 居敬을 重히 했다. 이것을 다른말로 하면 存心·存養이라는 것을 學問의 中心에 두었다. 存心이란 人間이 지니는 훌륭한 本心을 存在시키는 것이며 存養이란 그 本心을 存續시켜 養成하는 것이다. 闇齋의 말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學의 길은 致知와 力行的 둘이 있어서 存養은 卽 그 둘을 貫徹하는

李退溪의 史的地位와 日本儒學과의 異質性

것이다. 漢唐間에 知者가 없지 않았고 行者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存養의 道를 듣지 못했으면 그 아는 바의 分域, 行하는 바의 氣象, 곧 聖人의 徒일 수 없다」(近思錄序) 또 「存養의 要는 敬뿐」이라고도 하고 있다. 즉 敬에 의한 存養이야말로 가장 肝要하며 存養에 시키지 않으면 聖人大賢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던 敬이란 무엇인가. 敬이란 他에 對해서는 畏敬하는 것이며 自己에 對해서는 畏謹하는 것이다. 山崎闇齋의 高弟 淺見綱齋는 「어떠한 큰 賢人이라도 한번 死刑이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人間의 훌륭한 本心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本心을 사람이 家內에 있는 것과 같이 언제나 存續시키는 것이 居敬」이라 說明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알기쉬운 說明이다. 程子는 敬을 「主一無適」이라 定義하고 있다. 精神을 集中하여 全精神, 全精魂을 傾倒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의 靈活한 本心이 나타난다고 說明하는 것이다. 또 程子는 敬을 「整齊嚴肅」이라고도 定義하고 있다. 그 意味는 外形을 嚴肅히 갖추면 스스로 內心도 잡혀져 靈妙한 本心이 作用한다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李退溪가 林下 數十年의 노력을 거치서 自覺을 얻었다고 述懷하고 있다. 이와같이 全精神을 統一하여 인에 當할뿐 아니라 언제나 心이 動하는 以前의 純粹性 尊嚴性(이것을 未發의 中이라 함)을 存養하고 또 心이 動하는 瞬間을 把握하여 察識하고 心이 언제나 誠이 되도록 省察을 加해 活動할 때도 조용히 하고 있을때도 이 敬을 持續한다—이것이 學問의 出發點을 이루고 終着點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本心을 갖는 存心하는 努力으로서 靜坐法을 實踐한다. 朱子도 晩年에는 「半日讀書·半日靜坐」의 生活을 보였다고 하나 退溪도 闇齋도 朱子の 靜坐法을 實踐하고 獎勵하였다. 이와같이 存養을 學問의 中心으로 하고 敬의 努力을 가장 重히 했었다. 이 점이 李退溪學問의 가장 特色있는 점이며 山崎闇齋나 大塚退野가 가장 共鳴한 點이었다.

도시 朱子の 學問은 元과 明 이렇게 時代를 지남에 따라 居敬보다도 窮理를 重히 여겨 學者들은 막연히 널리 책을 읽고 그저 博識하게 되기를 바라거나 헛되게 理氣哲學을 穿鑿하여 空理空談을 일삼는 風으로 墮落하는 傾向이었다. 王陽明이 致良知의 學을 主張하면서 易簡直

敎한 實踐的인 陽明學을 高唱한 것도 이와같은 朱子學의 弊風을 矯正
 할려고 한데 있었다. 이때를 當하여 李退溪가 王陽明의 直後에 태어
 나 純粹하게 朱子를 믿고 朱子의 精神을 明白히 하고 窮理보다도 居
 敬存養에 한층 重點을 두는 實踐的인 道學을 高唱한것은 「偉」로 해야
 할 것이며 나는 여기에야 말로 李退溪의 東亞세아에 있어서의 朱子學
 史上 빛나는 地位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李退溪의 史的地
 位는 단순히 四端理發 七情氣發說을 首唱한 點에 있지않고 居敬存養을
 重視하는 實踐的인 道學을 主唱, 다시 朱子의 精神을 易簡直截하게 明
 白히 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하여 李退溪의 學問은 省察存
 養을 重히 하는 매우 實踐的이기 때문에 그런 意味로서는 陽明學과는
 恰似한 點이 있는 學問이 되어있다. 現在 日本의 井上哲次郎先生은
 橫井小楠을 잘못 陽明學者의 系列에 넣고 있으며 山崎派 大塚派의
 學問은 다름 朱子學派인 京都學派나 林學派의 系統의 學風과는 상당히
 그 趣를 달리하고 있었다.

5. 氣質變化의 修養學

(四) 以上 道學의 性格을 分析하면 大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데 더시 더 補足하여 論述한다면 道學은 결국 稻葉默齋가 말한바와
 같이 「氣質이 變化하는 것을 指向하는 學」다시 말해서 人間純粹化하
 여 理想에 다가가는 實踐的인 修養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래서 대단히 實踐的인 性格을 갖고 보다 艱難을 읽어서 一事一物을
 窮理하는내 권태기도 단순히 머리로 認識하는 것이 아니고 一身의 가
 까운내시 自己의 自體나 行動에 비추어 實驗하여 體認한다. 「切己近
 思」 「體認體察」을 重히 한다. 日常生活에서 默然히 있을때도 말을
 할때도 一念一念의 動하는바에 省察을 加하여 克己 誠心에서 發蘊는
 가 天理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察識하여 窮理하고 力行한다. 말하자면
 日常生活을 통하여 窮理하고 自己를 純化하것금 修養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修養第一主義라고도 할 것을 說明하는 것이 道學의 特徵이다.
 따라서 이 道學派는 「道에 任한다」는 말을 愛用한다. 道를 重히 함으
 로 道를 負荷하고 스스로의 出處進退에 嚴하게 「尊道重己」를 強調한

나. 自己의 一體性 確立을 指向하여 研鑽하고 自己를 重히이기 行動하는 것이다.

6. 道란 人倫의 道, 天地의 道

(五) 그러면 다음에 이와같이 重히 여긴 道란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多少說明을 加하여 道學派의 人間觀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道란 것은 말할 나위없이 五倫의 道이다.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라는 다섯의 人間關係의 道이다. 學問의 目標은 이 다섯의 人間關係의 道理를 明白히 하고 實踐하는 것이라고 朱子는 저 「白鹿洞揭小」속에서 表示하고 있다. 山崎闇齋는 三十三歲時, 李退溪의 『自省錄』을 읽고 그 「白鹿洞揭示」의 解釋에 感奮與起하여 李退溪에 傾倒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闇齋가 뒤에 「人之一身五倫具備」라고 高唱하여 그 高弟 淺見綱齋는 이것을 다시 端的으로 「人이란 人倫이다」고 喝破하고 있다, 그 意味는 人間이란 결코 「個」로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君臣 父子 夫婦 長幼 朋友의 關係 속에 있는 人間이다, 어머니인가 子인가, 夫人인가, 妻인가의 그러한 맺임 속에서만이 存在하는 것이 人間이며 그러한 關係를 斷絶한 「個」로서의 人間은 觀念的으로 생각되어 지지만 現實的으로는 存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人間으로서 完成한다고 해도 그 五倫의 道에 即하여 道理를 생각하고 實踐하는 以外는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朱子說에 根據하는 것이지만 「人이란 人倫이다」라고 한 말은 실로 徹底한 말로기 發하여서 일은 妙이다.

이와같이 人間을 五倫속의 人間으로서 把握함과 同時에 人間의 마음을 깊이 探究하여 人間의 마음에는 本來 天地宇宙의 心에 留宿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天地宇宙는 실로 整然 또한 燦然한 秩序下에 있지만 그 天地之心, 말하자면 宇宙精神은 무엇인가 하면 物을 낳고 낳겠다고 하는 生生發刺한 「物을 生하는 心」이며 그 心은 사람을 사랑하련다, 사랑하련다고 하는 사랑하지 않고서 배길 수 없는 心과 一體가 되어 있다. 이 사랑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活潑한 心이 仁이며 心의 性根이며 人間은 이와같은 따스한 心을 天地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 이 仁의 心이 欲望때문에 겹겹히 隱蔽되어 있는 것이 人間現實의 모습이다. 그래서 삼가하고 조심하는 敬에 의해 그 隱蔽를 除去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하면 本來의 生生하고 눈부신 本心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즉 人間을 人倫속의 人間이라고 把握함과 아울러 人間을 宇宙의 生命力과 이어지는 人間으로서 把握하여 사랑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人間의 本質이라고 把握하는 것이다. 따라서 道란 五倫의 道인 同時에 天地宇宙의 道이며 人間의 本質에 이어지는 道이다. 이 道를 眞知實踐하는 것이 學問教育의 目的이며 이 道를 實現하고 融合一圓의 世界를 建設하는 것이 人間의 해야한 일이며 敦篤히 道를 믿는 것이 道學의 指標이다. 이와같은 생각을 哲學的 用語를 써서 嚴密히 說明한 것이 理氣哲學이다. 李退溪哲學은 肉體나 形質의 原因이 되는 氣보다도 精神이나 法則의 原因이 되는 理의 存在를 主로하여 생각하는 「理의 哲學」이며 그는 人間의 心에 嚴然히 存在하는 天理, 道德的 根源의 實施를 믿고 그 理가 單獨으로 發動하는 일도 있다고 믿어 疑心치 않았다.

7. 第二의 王仁

以上 李退溪의 道學의 性格과 「아세아」朱子學史上的 地位를 考察한 바인데, 이어서 日本文化史에 있어서 李退溪의 地位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荻生徂徠는 日本의 大陸文化輸入의 자취를 생각하여 注目한 4인사(四人)가 있는데 그 첫째가 百濟의 王仁이며 王仁이 있어서 비로소 文字를 알게 되었고 둘째는 吉備眞備로서 眞備에 있어서 六經이며 六藝가 비로소 整備되었으며 셋째는 菅原道眞이며 여기서 비로소 漢詩文을 갖게 됨 되었다. 넷째 藤原惺窩인데 그가 있어서 「天」을 이야기하고 聖人이라는 말을 입에 담게 되었다. 이 4인은 마땅히 大學에 配祀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藤原惺窩에 이르러 비로소 天을 말하고 聖人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은 神이나 佛을 豫定하는 倫理의 根源을 이야기하고 人間의 理想으로서 聖人을 이야기하겠음 되었다는 意味에서 비로소 宗教로부터 分離하여 倫理學이 獨立하게 되었다고 하는 意味이다. 神佛의 加護를 믿는 世界觀에서 人間의 力を 믿

고 그 秩序를 重히 하는 世界觀으로 變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 藤原惺窩는 文祿·慶長(壬辰 丁酉)의 戰後 가기 온 數 많은 朱子關係 書를 읽고있고 또 붙잡힌 朱子學者姜沆과 交遊하여 그의 指導를 받아 李退溪가 새겨놓은 「延平問答」을 가장 愛讀하여 日本近世儒學의 開祖로 된 사람이다. 李退溪는 山崎闇齋學派나 大塚退野學派로부터 篤實히 尊信되어 그 著述도 거의 江戸時代에 出版되어 日本儒學界에 지지않은 影響을 미쳤다. 이런 點으로 생각하면 나는 李退溪를 「第二의 王仁」이라고도 할 큰 功績을 남긴 사람이라고 評價하는 것이다. 이것도 要컨대 李退溪는 朝鮮儒學史上 泰山北斗인 同時에 東아게아 儒學史上에서 보아 道學中興의 祖, 道義哲學東漸史上의 第一 桴面을 裝飾한 學者이며 日本文化史에서 보면 第二의 王仁이라고 그 位置를 固定시킬 수 있는 것이다.

II. 日本儒學과의 異質性

1. 存心の學과 大義名分の學

以上 李退溪의 史的地位를 考察하였는데 다음은 日本儒學과의 異質性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山崎闇齋나 大塚退野는 李退溪에 傾倒하여 그 影響을 받았으나 闇齋나 退野의 學이 退溪의 學과 同一할 수는 없다. 도서 儒學을 修己治人の 學이라고 하고있다. 그런데 李退溪는 主로 自己完成의學, 修己의學을 말하였다. 朱子의 學은 居敬窮理의 學이라고 하는데 李退溪는 居敬에 무게를 두었다. 그리하여 「本心을 存續하는 것이 政治의 根本이다」 「心을 存하는 것은 治를 하는 本」 (自省錄·答黃仲舉)라고 하여 오로지 存心을 말했고 存心을 말했는데 存心마저 될수 있다면 자연히 世上은 갈 다스리지 秩序는 이루어질수 있다고 말한다. 즉 存心이라는 個人修養과 政治를 連續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傾向이 있었다. 個人修養을 政治의 根本으로하는 思考方式은 儒敎의 傳統的인 思考方式이며 훌륭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修養과 政治를 지나치게 安易로 結付하는 思考는 儒學의 範圍를 狹小하게 만

는는 것이다. 閻齋도 道學者이기 때문에 治人의 道·政治의 學에 관해서 昭詳히 論及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오직 閻齋는 修己의 學 위에 다시 朱子의 大義名分說을 發展시켰고 그리고 그것을 日本의 國體에 適合할 수 있게 改變하여 日本的인 朱子學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點이아말로 閻齋學의 가장 特色있는 點이다. 즉 閻齋도 五倫의 道를 學問의 對象으로 했으나 五倫의 道 가운데서도 「君臣의 義」를 가장 重하게 생각했다. 千條萬目的의 모든 道德의 根本이 될수 있는 것이 君臣의 義이며 이 君臣의 義가 崩壞하면 國家社會의 秩序는 잃게되어 一切의 道德은 成立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韓退之作인 『物幽探』라는 琴歌를 表章하여 純粹無雜한 臣下의 絶對的인 忠誠心を 讚揚하여 武力革命을 이룩했던 殷의 湯王, 周의 武王을 물리치고 革命을 遂行하여 天地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은 오직 後漢의 光武帝 뿐이라고 斷定했다. 元의 大學者 許魯齋는 明의 薛文清을 贊揚하고 明의 丘瓊山을 許魯齋가 宋의 遺民이면서 元의 王朝에 出仕했다는 理由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閻齋는 丘瓊山의 說에 贊成하고 있다. 이와같이 中國歷史上의 人物은 물론 日本歷史上의 人物에 관해서 大義名分에 비추어 일일이 嚴하게 斷罪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日本의 國體를 생각하여 日本은 위로는 萬世一系인 朝廷을 만들고 君臣의 義가 完全히 行해진 萬邦無比의 國體라고 喝破하고 國體를 守護하기 위해서 身命을 거르어 인니고 強하게 呼訴했다. 즉 朱子의 尊王思想이 日本에 適用하여 徹底하게 強調되었던 것이다. 또 朱子의 平夷內外說을 日本에 適用하여 日本의 立場에서 한다면 日本이아말로 中國이라 稱해야 하며 실지로 古人은 豊草原의 「가운데」(中)나라 라고 부르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하고 當時 知識人사이에 蔓延하고 있었던 中華崇拜思想, 慕華思想을 徹底하게 排擊하고 마침내 「孔子 孟子가 만일 日本에 쳐들어 온다면 이것을 모두 擊殺시키는데 日本에서의 孔孟의 가르침이며 또 한 春秋의 道이라」고 하는 저 驚異할 言辭를 發하기에 이르렀고 있다. 이와같이 閻齋는 君臣의 義에 관해서 가장 重히 여겨 嚴하게 古人의 出處出退에 관해서 批判하고 그리고 朱子의 大義名分說을 主體的으로 受容하여 日本의 政治의 大根本을 明白히 하고 있다. 이리한

主張은 특히 高弟인 淺兄 綱齋에 이어져서 發展되었다. 그런 까닭에 綱齋는 中國·朝鮮의 儒者가 聖人이라 우르리 본 楊王武王을 「主를 殺害한 大罪人」이라 斷罪하고 「우리 日本에 대어니서 우리 日本을 旅宿店처럼 생각하는 것은 古今第一의 잘못」이라고 하였고 孔門의 顏回가 무릎을 꿇고 비게로 감아 「陋巷에 道를 즐겼다」고 하는 것도 만일 日本人이 日本의 道를 생각지 않고 道를 즐긴다고 하니라도 그것은 非人 乞食이 햇볕을 쬐이고 있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도 하며 또 日本人이 仁을 求한다하고 樂道한다고 하는 경우는 日本의 吉田大猷에 근거하여 永仁樂道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안된다는등을 強調했다. 이 閔齋와 綱齋의 主張은 水戶學派에로 흘러가는 한편 脈脈히 後世에 傳해서 혹은 山懸大猷 竹内式部の 勤王運動이 되고 혹은 橋本左内 梅田玄派 등의 思想과 行動이 되었으며 明治維新의 思想的 一大原動力으로 되었다고 할은 史家가 한결같이 認定하는 바인 것이다. 閔齋나 綱齋는 오직 덧붙이기로 尊王論을 主唱하여 日本主義를 絶叫한 것은 아니었다. 그 靑面에는 깊은 哲學思想을 가지며 透徹한 修養論을 가졌음으로서 그와 같은 偉大한 影響을 後世에 미치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哲學思想과 修養論은 李退溪에서 받은바가 多大하였던 것이다.

2. 日鮮中三國의 朱子學

中國清朝의 朱子學은 文獻實證的인 朱子學研究로서는 發展하였지만 清朝가 滅亡할 무렵에 단 한사람의 殉國者도 나오지 않았다. 朝鮮朝의 朱子學界에게는 李退溪 李栗谷과 같은 大儒가 나타났지만 朋黨의 政爭을 되풀이하여 國力の 衰退를 가져오게 하였다. 日韓併합에 義兵을 일으켜 殉國한 사람은 그 學派에서 적지아니 나타나 있지만 國力の 培養의 기틀로는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日本의 경우는 幕藩體制의 安定化에 寄與하여 三百年의 平和를 維持하는 한편 明治維新의 思想的 一大原動力으로 되어 國力の 發展에 크게 寄與했다.

그 理由는 이데에 있는가. 그 原因은 複雜하여 單純히 斷言하기는 어렵지만 清朝의 경우는 異民族이 支配하는 征服王朝였기 때문에 清朝는 朱子の 尊王攘夷思想을 拔骨脫胎로 만들었다. 그리고 朝鮮의 경

우는 朝鮮社會는 血緣과 師弟關係의 因緣을 대단히 重히하는 社會構造로 되어있다. 따라서 血緣 師緣에 의해서 각각 굳게 團結하여 血鬪를 되풀이, 民族으로서 團結하는 힘으로 結付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 日本은 單一民族이며 그리고 天皇을 崇拜하는 傳統的 心情을 띠고 朱子學을 主體的으로 日本化했기 때문에 偉대한 思想的 힘을 發揮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道를 넓게 하는 것이지 道가 사람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孔子의 말이 있는데 孔子나 朱子가 強調하는 道도 이 道를 負荷하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勃興도 하고 衰弱도 하게 된다는 事實을 日韓華의 朱子學發展의 자취를 回顧한 때 加感하지 않을수 없다.

3. 元田永孚와 李退溪

마지막으로 元田永孚와 李退溪와의 關係에 言及해 두고자 한다. 元田永孚는 明治天皇 寶令二十歲때부터 侍講이 되어 天皇의 絶대한 信賴를 받았으며 明治의 教育指針確立에 絶대한 寄與를 한 사람이다. 明治初年경 日本이 西歐思想의 洗禮를 받았을때 文部省이 古來의 人間教育의 理想을 忘却하고 한 길로 實用主義의인 立身出世主義의인 科學萬能主義의인 教育主義를 模倣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國粹主義者가 排他的인 偏狹한 國粹主義의 教育主義를 主張하여 日本의 教育主義가 左右로 分裂되어 크게 搖動하고 있을때 右로도 左로도 偏重않는 中正的인 教育主義를 定立하는데 가장 힘을 傾注하여 明治天皇을 補佐하여 마침내 教育勅語의 煥發에 盡力하여 「明治第一의 功臣」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元田永孚이었다. 그런데 이 元田은 大塚退野의 門流 横井小楠을 스승으로 또 親友로 삼아 그 感化를 가장 많이 받았다. 그 元田이 「程朱學은 朝鮮의 李退溪에 傳해져 退野先生은 그의 所撰인 朱子書節要를 읽고 超然히 얻은바 있었다. 나는 지금 退野의 學을 이어 이것을 皇上(明治天皇)에게 바친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松田甲의 『日鮮史話』에 引用되어 있는데 「元田家文書」 속에는 李退溪에 言及하고 있는 句節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元田은 大塚退野를 篤信한 것은 疑心할 餘地가 없다. 그 詩에 「海內名儒可屈指, 道德眞傳誰邪是, 嗚呼非林非伊又非崎, 吾服東肥兩夫子」라고 있다.

「東肥兩夫子」란 肥後의 大塚退野와 그 門人平野深淵이며 이들이야말로 道를 眞實히 傳한 사람이다. 道德을 참되게 傳한 사람은 林羅山, 伊藤仁齋, 山崎闇齋가 아니라 大塚退野, 平野深淵 그 사람이라고 옳고 있다. 그리하여 大塚退野는 李退溪의 『自省錄』朱子書節要』를 熟讀하여 心眼을 열었고 이 二書를 「神明과같이 父母와 같이」 所重히 한 사람이다. 그리고 元田는 李退溪를 「古今絶無의 眞儒」라고 尊敬한 横井小楠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으므로 元田가 間接的인면지도 李退溪에 傾倒했던 것을 疑心할 餘地가 없다. 眞에 朝鮮에서 「教育勅語의 草案者元田永孚의 學은 李退溪로 부터 나왔기 때문에 教育勅語는 李退溪에서 나왔다」는 說이 流布되었으나, 이것은 매우 飛躍이 많은 잘못된 議論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教育勅語는 儒教倫理를 根底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日本古來의 皇道主義, 水戶學의 皇道主義에 의해서 貫通되어 있다. 教育勅語=儒教倫理가 아닌것과 같이 元田永孚의 思想이 그대로 李退溪의 思想일 까닭은 없다. 그러나 修身修養을 教育第一義에 두는 생각은 間接的으로나마 李退溪와 一脈의 關連이 있다. 明治十九年, 明治天皇은 東京大學에 行幸하여 學內를 視察하셨을때 西歐의 學術을 考究하는 學科는 가추어있는데 「修身을 主로하는 和漢의 古典」의 學科가 欠해 있음을 怪異하게 여기셔서 이래서야 日本의 將來는 危殆롭다고 생각하시어 그 旨를 元田에게 懇曲히 말씀하셨던 것이다. 元田는 이것을 「聖諭記」로 記錄하고 있다. 和漢의 古典을 특히 「修身을 主로 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내에 注意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客觀的으로 또는 傍觀的으로 事物을 考究하는 西歐의 學術이 아니라 人倫의 道를 主體的으로 스스로의 問題로서 追究하여 참된 自主性 主體性을 自己에 確立하는 和漢의 學을 考究해야 할 것임을 說諭하신 點은 크게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안되는 바라고 생각한다. 客觀的인 觀察만으로는 主體性, 自主性은 결코 贊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元田도 明治天皇과 같은 생각이었으며 이 點에야말로 李退溪의 思想과 一般의 關連性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要컨데 山崎闇齋나 元田永孚의 學은 결코 그대로가 李退溪의 思想은 아니라는 말이다. 山崎도 元田도 共히 日

木의 國體에 맞추어 時勢에 適合하겠금 朱子學을 變容하여 상냥히 質的인 것으로 形成시킨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同質面이 많이 그 思想의 根底에 있어서 李退溪의 學恩을 입은 點도 결코 적지않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되겠다. 楠本傾水는 「李退溪는 朱子를 배우고, 山崎闇齋는 朱子를 探究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李退溪는 駁雜으로 흐른 朱子學을 純粹하고 易簡直截的인 實踐的 修養學으로서 「小成의 朱子」라고 일클만큼의 學德을 이룩했다. 한편 山崎闇齋는 朱子學說을 徹底的으로 探究하고 그리하여 日本化하여 國運의 發展에 寄與했다. 徹底的 思想이 歷史에 그 活力을 發揮한다는 것은 이들 學者들의 思想과 行動을 보면 쉽게 首肯이 가는 것이다. (끝)〈原文日本語〉